

SK에너지, 브라질 원유 광구 매각

생산광구 투자에 원유 개발기업 인수 ... 자원사업은 SK네트웍스에 양도

SK에너지가 브라질 원유 광구의 지분을 매각하고 원유 개발 전문기업 인수에 나선다.

SK에너지(대표 구자영)는 12월23일 정기이사회에서 브라질의 원유 광구 개발을 위해 설립한 브라질법인의 지분을 덴마크 Musk Oil에 24억달러(약 2조7276억원)에 넘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브라질 원유 광구를 매각해 확보한 유동성을 활용해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광구에 투자하거나 원유 개발 전문기업을 인수할 방침이다.

2000년 설립된 SK에너지 브라질법인은 생산광구인 BM-C-8과 탐사광구인 BM-C-30, BM-C-32의 3개 해상광구에 대해 각각 40%, 20%, 26.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실제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생산·개발단계 광구의 비중을 높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SK에너지는 1983년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시작해 페루, 브라질, 베트남 등 16개국, 31개 광구에서 탐사·개발·생산해왔다.

구자영 SK에너지 사장은 “지금까지 쌓아 온 자원개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 단계 도약을 이루어나갈 시기”라며 “투자자금 확보와 광구 재편성으로 효율적인 석유개발 사업을 통해 정부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내 에너지 자주 확보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석탄·광물사업 부문을 그룹 계열사인 SK네트웍스에 2011년 2월1일 자로 2366억원을 받고 양도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SK에너지는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진행하는 석탄과 우라늄 등 광물 사업 12개와 기타 자산 모두를 SK네트웍스에 넘기게 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0/12/24>